『종교학연구』 제41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23, pp.103-131

역사 속 섭리에 대하여
: 함석헌과 허버트 버터필드의 종교적 역사관 비교 연구

유 주 영*

目 次

Ⅰ. 서론
Ⅱ. 역사가로서 함석헌과 버터필드
  1. 함석헌의 성장 배경과 역사관
  2. 버터필드의 성장 배경과 역사관
Ⅲ.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섭리적 역사 이해
  1. 섭리의 안티테제: 부재하는 신
  2. 섭리의 주체: '뜻', 그리고 '하나님'
  3. 섭리와 고난
Ⅳ. 결론

Ⅰ. 서론

(근대의) 역사서술의 방법은 사실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유발되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연구적인 태도에 있어서 또 옛날의 여러 사가들이 빠졌던 미신·편견에서 역사를 구하여 하나의 독립된 학문적 지위를 부여해준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적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죄를 범한 것이 있으니 곧 역사에서 뜻을 빼버린 것이다.[1)]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서울: 함석헌기념사업회, 2023), 24.

> 지난 수세기 동안에 종교에 손실을 가져오게 했고 종교적 지각(知覺)을 손상시켜 온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은 부재자(不在者) 하나님이라는 관념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는 우주를 시계와 같이 돌아가도록 맞추어놓고는 우주에서 떠나갔다고 보는 견해이다.[2)]

이글의 목적은 동시대를 살아온 한국의 사상가 함석헌(咸錫憲, 1901-1989)과 영국의 역사학자 허버트 버터필드(Sir Herbert Butterfield, 1900-1979)의 섭리 사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글은 특히, 그들이 각자의 시대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신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고난이라는 핵심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공통점은 역사학을 전공하였다는 사실과 20세기 초중반의 시기를 살아간 점, 그리고 자신들만의 종교관을 바탕으로 당면한 시대의 역사적 모순과 비극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는 것이다.

함석헌은 한국의 종교인, 사상가, 역사가, 그리고 사회 운동가로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부터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변혁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및 군부독재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섭리와 민중의 고난을 다루는 독창적인 종교적 사관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사고는 그의 대표작인『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잘 드러난다. 김한라에 따르면, 함석헌은 역사가 신적인 힘, 즉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다. 이러한 관점은 신학적 요소와 목적론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행을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 즉 텔로스(telos)를 믿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버터필드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 우월성의 시각에서 과

---

2) 허버트 버터필드 (Herbert Butterfield),『크리스천과 역사해석』, 김상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61.

3) Halla Kim, "Ham Sŏkhŏn and the Rise of the Dynamistic Philosophy of Histo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7 (2016): 151.

거를 해석하는 휘그 사관[4]을 신랄하게 비판한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20세기 중반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이론인 영국학파(English School)[5]의 확립에 기여한 외교사학자이기도 하였다.[6] 버터필드는 역사 속에 드러난 인간의 폭력과 고통을 목격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중첩되며 연속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지성적 자만을 경계하며, 신의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는 버터필드의 역사 이해에서 섭리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7] 그의 섭리사관은 *Christianity and History* (1949)를 포함한 그의 다양한 저서와 논문에서 나타난다.

함석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는 일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오산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활동했으며, 『뜻으로 본 한국 역사』(1962)와 같은 저술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주요 연구로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나타난 함석헌의 역사 사유 체계에 관한 연구[8]와 1930년대에 그의 신앙관과 역사 연구를 기

---

4) 휘그 사관(Whig History)은 개신교 신앙과 1688년의 명예혁명으로 이룩된 영국의 입헌군주제 및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질서로 보고, 역사가 이러한 질서를 향해 진보하며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사관은 세계가 신에 의해 완벽하게 구성된 질서와 법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휘그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관점이 역사상 최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과거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Michael Bentley, *Modernizing England's Past: English Historiography in the Age of Modernism*, 1870-197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44-146.

5) 영국학파(English School)는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등장한 국제관계학 분야의 저명한 이론으로 영국국제관계학파(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도 불린다. 영국학파는 국제관계 현실주의 이론과는 달리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며 공유된 규범, 제도 등에 의해 운영되는 협력 체계라고 본다. 버터필드는 영국학파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1959년 출범한 영국 국제정치이론 위원회(British Committee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초창기 맴버였다.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국제정치논총』 62 (2022): 13.

6)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15.

7)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15-16.

반으로 형성된 독창적인 역사관에 대한 분석[9]이 있다. 또한, 함석헌의 역사 철학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철학적 기반과 목적론적 경향을 탐구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0] 함석헌의 역사관을 다른 인물의 그것과 비교한 연구로는 함석헌의 역사 서술이 신채호의 시대 구분에 영향을 받은 점에 주목한 연구,[11]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와의 비교를 통해 두 인물이 역사를 인간 존재의 근본 본질로 보는 공통점을 탐구한 연구[12]가 있다.

버터필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버터필드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룬 주요 전기 작품으로는 C.T. 매킨타이어(C.T. McIntire)[13]와 마이클 벤틀리(Michael Bentley)[14]의 저술이 있다. 이 전기들은 버터필드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며, 그의 역사, 과학, 종교에 대한 견해를 공식 문서와 사적인 서신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정리한다. 이는 버터필드의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버터필드의 기독교 현실주의적 관점이 그의 역사 이해와 국제 관계 연구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15] 몰몬교 역사가가 버터필드의 섭리사관을 몰몬교의 관점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16] 한편, 국내에서의 버터필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

8)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의식과 사유체계」, 『신학사상』 142 (2008): 159-194.

9) 조광, 「1930년대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한국사 이해」, 『한국사상사학』 21 (2003): 507-547.

10) Halla Kim, "Ham Sŏkhŏn and the Rise of the Dynamistic Philosophy of History in Korea," 149-178.

11) 이만열, 「신채호와 함석헌」, 『한국사학사학보』 43 (2021): 173-196.

12) Songchong Lee. “Homo-Historicus of Wilhelm Dilthey and Ham Sok Hon,” *Clio* 50 (2023): 121-150.

13) C. T. McIntire, *Herbert Butterfield : Historian as Dissen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14)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 History, Science, and G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5) Ian Hall, “History, Christianity and Diplomacy: Sir Herbert Butterfie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2002): 719-736.

16) Malcolm R. Thorp, “Herbert Butterfield on Tragedies and Providence in the Twentieth-Century Historical Experience: A Reappraisal,” in *Window of Faith: Latter-day Saint Perspectives on World History*, ed. Roy A. Prete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5), 447-460.

이다. 개혁주의 개신교 관점에서 그의 역사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신학 석사 논문이 있으며,[17] 최근에는 외교사의 관점에서 영국 국제사회학파의 초기 인물로서 버터필드와 그의 기독교적 배경을 다룬 연구[18]가 진행된 바가 있다. 그러나 버터필드를 국내 인물과 비교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Ⅱ장에서 역사가로서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성장 배경과 역사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개관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생애를 통해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각자 어떤 역사관을 형성했는지를 간략하게 조명한다. Ⅲ장에서는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섭리적 역사 이해를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두 사람의 섭리 사관은 20세기 초반의 과학주의 사관과 이신론 사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섭리 사관을 강화시키는 '부재하는 신'을 섭리의 안티테제(antithesis)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섭리를 이끄는 주체에 대한 두 인물의 이해를 비교한다. 이어서, 역사 속에서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난'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탐구한다.

본 연구에서 함석헌의 역사관 분석을 위해 참고한 주요 저서는『뜻으로 본 한국역사』[19]와『뜻으로 본 인류역사』[20]이다. 또한, 함석헌의 다른 저작들은 바보새 함석헌(http://www.ssialsori.net)에서 e-book으로 출간된 함석헌 전집『씨올함석헌전집』[21]을 참고했다. 허버트 버터필드의 경우, 그의 휘그 사관 비판을 잘 보여주는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1931)[22], 기독교와 역사의 관계를 다룬 *Christianity and History* (1949)[23], 그리고 C.T. 매킨타이어(C.T. McIntire)가 편집

17) 이종전,「H. 버터필드의 역사관 연구」(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8).
18) 안두환,「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국제정치논총』62 (2022): 7-65.
19)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파주: 한길사, 2003).
20) 함석헌,『뜻으로 본 인류역사』(파주: 함석헌기념사업회, 2023).
21)『씨올함석헌전집』(바보새 함석헌: 동서를 아우른 생명평화사상). http://www.ssialsori.net/
22) Herbert Butterfield,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23)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0).

하고 김동신이 1982년 번역한 버터필드의 강의집『크리스천과 역사해석』[24]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신을 지칭하는 용어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神)'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글을 직접 인용할 때는 그들의 의도를 존중하여 '하나님'을 사용할 것이다. 함석헌은 생애 후반부의 신앙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으며, 버터필드가 언급하는 'God'에 대해서는 그의 감리교 신앙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인 '하나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Ⅱ. 역사가로서 함석헌과 버터필드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표면적으로 여러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출생 연도는 단 일 년 차이로 동시대를 산 인물들이다. 이들은 각각 평안북도 용천군과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의 옥센호프(Oxenhope) 출신으로 상류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25][26]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 전통에서 성장했다. 함석헌은 일본의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지금의 일본 츠쿠바(筑波)대학]에서, 버터필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각각 역사학을 전공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1차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국주의의 시대를 경험하며 20세기 전반기 인류사의 비극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성장 배경과 살아온 환경에서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버터필드는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 시민으로 성장했으며, 감리교 신자로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평생 유지했다. 반면, 함석헌은 대한제국이 쇠망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던 시기에 태어나 식민 지배의 고통 속에서 자랐다. 함석

24) 허버트 버터필드 (Herbert Butterfield),『크리스천과 역사해석』, 김동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5) 안두환,「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17.
26) 김성수,『함석헌 평전』(서울: 삼인, 2011), 71.

헌은 어린 시절 장로교 배경에서 성장했으나, 일본 유학 중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1930)의 영향을 받아 무교회주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복잡한 정치 및 종교적 상황을 경험하며 퀘이커 교도가 되었으며, 생애 후반에는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27] 본 장에서는 종교인이자 역사가로서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섭리사관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함석헌의 성장 배경과 역사관

함석헌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출생하였고 어려서부터 장로교 신앙을 토대로 신교육을 받았다. 그가 태어난 20세기 초반 조선은 경제적으로는 빈곤을 겪었으며 세계적으로는 오랜 쇄국정책의 여파로 '은둔자의 왕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28] 함석헌이 살던 용천군은 평안도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한 곳으로 지배계급이나 주류사회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29] 그가 살던 마을은 피지배 계급 중심의 공동체로 사회 현상 유지나 기득권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신문물 수용과 기독교 유입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주었다.[30] 이런 배경에서 함석헌 역시 어려서부터 친척들을 통해 신문물을 접하고 신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찍이 개신교(장로교) 신앙에 입문할 수 있었다.

함석헌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평양고등보통학교(平壤高等普通學校, 평양고보) 재학 시절에 일어난 3·1운동이었다. 그는 3·1운동을 통해 식민 지배 현실과 민족 문제에 눈을 떴고 자신이 다니던 평양고보에 대해 회의감을 품게 되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평양고보를 졸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했지만, 3·1운동에 참가한 학생이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인 교사들에게 사죄해야 했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었던 함석헌

27) 박재순,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파주: 한울, 2012), 58.
28) 김성수, 「함석헌의 역사-사회관」,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5 (2001): 342.
29) 김성수, 『함석헌 평전』, 83.
30) 김성수, 「함석헌의 역사-사회관」, 343.

은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다.[31)]

고향에서 잠시 머문 후, 1921년에 함석헌은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오산학교(五山學校)에 입학한다. 오산학교는 장로교인이자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했던 남강(南岡) 이승훈(李昇薰, 1864-1930)이 설립한 학교로 사회 개혁과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학교였다.[32)] 민족 독립에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석헌은 스승인 남강 이승훈과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를 만나 동양 종교의 사상들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퀘이커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의 *Journal* (1694)을 비롯한 서구 종교인들과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다. 특별히 영국의 소설가이자 역사 작가였던 H. G.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세계사 관련 저서들은 그의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33)] 웰스는 세계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되는 시대를 이상향으로 삼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지지하였다.[34)] 함석헌은 다수의 강연과 회고록에서 웰스를 상당히 각별하게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H. G. 웰스의 *A Short History of World* (1922)와 *The Outline of History* (1919-1920)를 주로 언급하였다.[35)] 특히 *The Outline of History*는 웰스가 생물학과 역사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1920년에 영국에서 출간한 것으로 이 책을 통해 함석헌이 세계주의와 과학주의를 배웠다는 것은[36)] 그의 다른 회고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다.[37)]

---

31) 김성수, 『함석헌 평전』, 92.

32) 김성수, 『함석헌 평전』, 102.

33) Songchong Lee. *Ham Sok Hon's Ssial Cosmopolitan Vi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20), 6.

34) 김성수, 「함석헌의 역사-사회관」, 345.

35) 반재영, 「함석헌 평화주의의 한 사상적 기원－H. G. 웰스의 세계국가론과 그 변용」, 『상허학보』 58 (2020): 398.

36) "여기 곁들여서 내 태도를 결정하게 한 것이 세계주의와 과학주의다. 세계는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국가주의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요, 독단적인 태도를 내버리고 어디까지 이성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서 과학과 종교가 충돌되는 듯한 때는 과학편을 들어 그것을 살려 주고 신앙은 그 과학위에 서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보다 높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18-19.

37) 반재영, 「함석헌 평화주의의 한 사상적 기원」, 399.

3·1운동 이후 동서양의 여러 서적을 탐독하면서 함석헌은 당대 현실에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오산 학교를 졸업한 후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게 된다.[38]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함석헌은 역사학을 중심으로 교육학과 물리학에 깊은 흥미를 가졌으나 당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공산주의와 아나키즘(anarchism) 등의 좌익 사상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함석헌은 일본에 유학 온 김교신(金敎臣, 1901-1945)을 만났고 우치무라 간조의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받아 무교회주의 운동에 감동을 받고 깊이 참여한다.[39] 좌익 사상에 동의할 수 없었던 함석헌은 김교신과 우찌무라 간조와의 만남을 통해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 Non-church movement) 신앙 속에서 종교적 신앙이 조국 사랑과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40]

1928년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함석헌은 모교인 오산학교에 돌아와 역사학 및 일반 윤리 교사로 부임한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역사 교사로 있던 그는 당시 조선사 학계에 있던 두 가지 문제점을 목격한다. 하나는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였고 다른 하나는 과장된 민족주의 사관이었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25년 설립된 역사 연구 단체였다. 동경제국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선사편수회는 1932년 전체 35권, 쪽수로는 2만 4,000쪽 분량의 『조선사』를 편찬하였고, 그 내용은 조선이 쇠망하여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식민 사관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었다.[41] 함석헌이 생각했던 조선사 학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장된 민족주의 사관인데 이것은 주로 식민통치에 저항하던 민족주의자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지적과 관련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저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만열은 일

38) 김성수, 『함석헌 평전』, 123.
39) 김성수, 『함석헌 평전』, 127.
40) 우찌무라 간조는 2J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Jesus(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Japan(일본)이다. 그에게 신앙과 애국은 동일한 것이었고 이는 함석헌의 초창기 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김성수, 『함석헌 평전』, 127.
41) 김성수, 『함석헌 평전』, 138.

본에서 정식으로 역사학을 공부한 함석헌이 당시 근대 역사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저술한 민족의식이 과도하게 노출된 저술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42]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함석헌은 1934-35년에 『성서조선(聖書朝鮮)』지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게재하였고, 1936-38년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를 연재한다.[43] 함석헌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서문에서 도서관도 참고서도 없는 시골 오산학교에서 "일본 사람이 쓴 모욕적인 서술과 한국 사람이 쓴 과장된 사실의 나열을 씹고 씹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젖을 내보자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44]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함석헌이 식민사관과 과장된 민족사관을 모두 극복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낸다. 함석헌은 한국인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려는 한국 역사의 왜곡된 견해를 지적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인들이 겪은 실패와 불행은 국가의 운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인류 공동체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5]

역사가 함석헌은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보다는 역사를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46] 양현혜에 따르면 함석헌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역사에 접근했다.[47] 첫째, 역사 속에 나타나는 비참함과 곤고함을 상쇄해 줄 만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둘째, 고통으로 가득 찬 역사에 대한 책임을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셋째, 역사의 변혁은 어떻게 가능한가? 함석헌의 역사관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국과 세계역사의 기저에 흐르는 어떤 정신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함석헌에게 역사가의 자격은 그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있는 것이었다.[48]

---

42) 이만열, 「신채호와 함석헌」, 182.
43) 이만열, 「신채호와 함석헌」, 178.
44)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12.
45) Songchong Lee, *Ham Sok Hon's Ssial Cosmopolitan Vision*, 7.
46) 조광, 「1930년대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한국사 이해」, 519.
47)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의식과 사유체계」, 162.

함석헌의 역사관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는『성서조선(聖書朝鮮)』에 연재한 것을 모아서 낸『뜻으로 본 한국역사(舊: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1934-35)』와『뜻으로 본 세계역사(舊: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 1936-38)』이다.『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통사적 입장에서 서술된 일반적인 역사서와 달리 사관(史觀)[49]에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으며 역사적 사실은 그의 사관을 분명하기 위한 보완 소재로 활용되었다.[50]『뜻으로 본 세계역사』는 그가 한국 역사를 보던 것과 동일한 사관에 서서 세계역사를 통찰한 저술이다. 함석헌은 자신의 세계사 서술에 대해 "(한국사와) 근본 졸가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되어가는 역사는 그 생각을 점점 더 뒷받침"[51]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6.25 전쟁을 거치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함석헌의 사상은 기독교 내부에서 보편-다원주의적 신념으로 확장된다. 함석헌에게 있어 한국의 문제들은 인류의 근원적 문제들을 보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에게 매우 중요했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더 원대한 비전을 품었는데 그는 이것을 세계주의(cosmopolitanism)라고 불렀다. 함석헌의 세계주의는 H.G. 웰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1960년대에 그가 참여하게 된 퀘이커(Quaker) 사상이 결합하여 발전한 것이다.[52] 이에 따라 그의 저서들의 이름도 일제히 "성서적 입장에서 본"에서 "뜻으로 본"으로 변경된다. 그는 개정판 서문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독교인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불신자라는 사람도 꼭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53]고 밝히면서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역사

48)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 43.

49) 함석헌은 사관(史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역사를 읽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할 것은 먼저 좋은 책을 고름이요, 그 다음은 또 읽는 방법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모처럼의 힘씀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땅히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역사책이 정말 좋은 책이요, 어떻게 읽는 것이 정말 바로 읽는 법이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자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는 사관이라는 것이다."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 39.

50) 양현혜,「함석헌의 역사의식과 사유체계」, 161.

51) 함석헌,『뜻으로 본 인류역사』, 18.

52) Songchong Lee, *Ham Sok Hon's Ssial Cosmopolitan Vision*, 8.

53)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 19.

를 제안했다. 『뜻으로 본 세계역사』에서 그는 역사에 있어서 어떤 민족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나라가 자기 홀로만의 위대를 부르짖어도 그 누구도 들어줄 겨를이 없다면서[54] 세계주의적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2. 버터필드의 성장 배경과 역사관

버터필드는 1900년 10월 7일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West Yorkshire)의 옥센호프(Oxenhope)의 독실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시 옥센호프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잉글랜드에서 외곽 지역에 속했으며 잉글랜드 비국교(非國敎)인 감리교가 주류였던 지역이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고향의 감리교 교구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교구민들 사이에서 유능한 설교자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설교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경건생활과 도덕에 관한 것이었다.[55] 버터필드는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감리교 목회자가 되는 것을 잠시 고려했으나, 1922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역사학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케임브리지 교구에서도 평신도 설교자로 계속 활동했지만 1936년에 설교자의 일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케임브리지 교구 평신도 설교자 직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정도로 감리교 신앙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56] 꾸준히 역사학 연구에 몰두한 버터필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총 6권의 책을 출판했다. 이 중 *The Peace Tactics of Napoleon,* 1806-08 (1929)과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1931)는 현대 국제관계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57] 그는 1944년 현대사 정교수로 임명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과 재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버터필드의 역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외교

54) 함석헌, 『뜻으로 본 세계역사』, 121.
55)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9.
56)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10.
57)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11.

사 연구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안두환의 분석에 따르면, 버터필드가 외교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면했던 주요 문제들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58] 첫 번째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갖는 문제점이다. 버터필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민족 간의 갈등과 대결 의식이 국가 간의 외교적 교섭 기회를 줄여, 결국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 이상주의의 득세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나타난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전후 독일에 대한 처벌과 같은 조치들이 정치를 지나치게 도덕적인 영역으로 치우치게 만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버터필드는 대중 민주주의가 외교 관계에서 필요한 섬세한 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는 대중의 과도한 개입과 공개적 요구가 외교적 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버터필드는 자국 역사학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를 다룬 그의 대표작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1931)는 당시 영국 역사학계에 널리 퍼져 있던 휘그 사관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휘그 사관은 영국 휘그당의 강령[59]을 바탕으로, 개신교 신앙과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이룩한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질서로 보고, 역사가 이러한 질서를 향해 진보한다는 관점을 취했다. 휘그 사관은 휘그 강령이 천명하는 것처럼, 개신교 신앙과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이룩한 입헌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이고도 이상적인 정치 질서로 보고 역사가 이를 향해 진보하여 발전한다는 관점이다. 휘그 역사가들은 우주가 신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어, 세계는 완벽한 질서와 법칙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휘그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관점이 역사상 가장 최상의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사건들과 인물들의 도덕

58)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18-19.

59) 휘그 강령(Whig Doctrine)은 1678년부터 1859년까지 영국의 보수당인 토리당(Tory Party)와 대척점에 있던 정당 휘그당(Whig Party)의 주요 원칙으로, 국왕은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the King should reign – but in no way govern)을 취한다. 이 강령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부 형태는 하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수상이 이끄는 의원내각제라고 여겨진다. 또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ichael Bentley, *Modernizing England's Past*, 145.

적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60]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인류 역사가 경험한 비극은 이러한 믿음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휘그 사가들은 인류의 원죄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처럼 버터필드는 1930년대부터 기독교적 원죄론을 바탕으로 휘그 사관을 비판하는 글을 썼지만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기독교적 관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신중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초기 신앙관,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내면적 집중과 마음의 확신에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61]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버터필드로 하여금 역사와 기독교에 대한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안 홀(Ian Hall)에 따르면, 버터필드가 1940년에 경험한 두 사건, 나치 독일에 의한 프랑스의 함락과 영국 상공의 침략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62] 마이클 벤틀리(Michael Bentley)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버터필드가 신의 뜻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논쟁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고 설명한다.[63]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영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쟁 동안의 비극적 경험을 해석하려는 논의가 증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진은 버터필드에게 기독교와 역사에 관한 공개강좌를 제안했다. 버터필드는 1948년 가을부터 기독교 관점에서 역사를 분석하는 강의를 시작했으며, 이 강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강의는 1949년 *Christianity and History*라는 책으로 출판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64] 버터필드는 이후에도 기독교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강연을 이어갔다. 안두환에 따르면, 버터필드의 역사 철학에서 일관된 점은 기독교 사관을 유지한 것이며, 그는 기독교가 신실한 자의 종교가 아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위한 종교라는 관점을 중시

60) Herbert Butterfield,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2.

61)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10.

62) Ian Hall, “History, Christianity and Diplomacy: Sir Herbert Butterfie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724.

63)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History, Science and G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04.

64)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216.

했다.[65] 그는 인류사의 비극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역사 속 고통의 원인을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그가 볼 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마르틴 루터의 말에 따르면, 동시에 의인이기도 하므로 선을 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66] 그렇기 때문에 버터필드는 역사 속 고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신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Ⅲ.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섭리적 역사 이해

1. 섭리: 부재하는 신의 안티테제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따르면 섭리(Divine Providence)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의 모든 사건들이 신의 주권적 인도와 통제 하에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리킨다.[67]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역사관에서, 섭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섭리는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역사를 논하는 것은 섭리의 존재를 전제한다. 또한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섭리를 강조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부재자 혹은 시계공 신 논리를 지닌 과학주의와 이신론을 반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섭리 사관은 당대의 무신론과 이신론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를 형성한다.

함석헌은 섭리를 모른 채 인간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류의 역사가 작동함에 있어 신이 인간을 기르고 보호하며 이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요, 역사는 그 나아가는 바퀴를 그 섭리의 축으로”[68] 꿴 것이다. 함석헌은 현대 역사학이 과학의 엄

65)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21.
66) C. T. McIntire, *Herbert Butterfield*, 164.
67) Hugh J. McCann and Daniel M. Johnson, “Divine Providenc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밀성을 바탕으로 발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이 역사의 해석적 영역을 제거하며 정신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69] 그는 특히 "하나님은 시계사(時計師)요, 이 우주는 한 번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계라고 생각하는" 이신론적 사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세계관에는 도덕이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70] 함석헌에게 역사의 근본적인 이해는 과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의미 해석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즉, 인간은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존재로, 뜻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71]

버터필드 역시 인류사 속 비극과 모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신의 섭리(Providence of God)를 강조했다. 그의 관점에서 역사는 신의 부재 혹은 신이 만들어놓고 방관하는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신이 삶의 모든 구체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모든 순간에 자신을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72] 버터필드의 문제의식은 동시대 역사가들, 특히 휘그 역사가들이 부재하는 신[73]을 만들어낸 것에 있었다. 휘그 역사가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을지언정, 그것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계장치(clockwork)처럼 만들어 두었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들에게 역사는 진보와 승리의 여정으로, 이성과 과학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버터필드 역시 역사 서술에 있어 과학의 기여를 인정한 동시에, 역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명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한 사건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는 전문적인 역사가의 증거나 기술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4] 예를 들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역사 연구는 베토벤의 생애나 그의 연주 기법을 파악할 수 있지만 베토

6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60.
69)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24.
70)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60.
7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79.
72)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62.
73)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61.
74)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214.

벤의 음악성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역사 이해로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이나 연대기적 순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적 동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버터필드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행위와 미래의 행위들이 가져올 결과는 신의 손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믿었다.[75] 따라서 버터필드는 현대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섭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6] 즉, 그에게 섭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신이 삶의 모든 구체적 상황에서 활동하며, 모든 순간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2. 섭리의 주체: '뜻', 그리고 '하나님'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역사 이해에서 섭리의 주체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신이다. 함석헌의 역사관에서 신은 '뜻'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동시에 '뜻'은 궁극적으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론적 개념이다.[77] '뜻'은 본래 기독교적 신과 동일한 개념이었으며 역사는 기독교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78] 1953년『대선언』발표 이후,[79] 함석헌은 자신의 신론을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신론을 넘어서 보편적 존재로 확장했다. 1961년『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을『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개정 출간하면서, 그는 자신의 신 개념이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음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창조신과 유일신 개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범신

75) 허버트 버터필드,『크리스천과 역사해석』, 247.
76) 허버트 버터필드,『크리스천과 역사해석』, 62.
77) Songchong Lee, "Homo-Historicus of Wilhelm Dilthey and Ham Sok Hon," 128.
78)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 13.
79) 함석헌은 1952년『흰 손』과 1953년『대선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밝혔다.『대선언』에서 그의 종교관을 잘 드러내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는 위대하다 / 그러나 참은 더 위대하다 / 참을 위해 교회에 죽으리라 / 교회당 탑 밑에 내 뼈다귀는 혹 있으리다 / 그러나 내 영은 결단코 거기 갇힐 수 없느리라"「6권: 수평선너머1」,『씨올함석헌전집』, 303-304.

론과 범재신론적 측면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신론을 확립하였다.[80] 함석헌의 신론 확장은 그의 관심이 한국인이나 기독교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함석헌은 자신의 신론을 설명하기 위해 '뜻'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내세우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같이 가는 데가 어디일까? 의인, 죄인, 문명인, 야만인을 다 같이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다 같이 믿으며 살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 소리가 '뜻'이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면 아니 믿어도 좋지만 '뜻'도 아니 믿을 수는 없지 않으냐? 긍정해도 뜻은 살아 있고 부정해도 뜻은 살아 있다. 져서도 뜻만 있으면 되고, 이겨서도 뜻이 없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뜻이라고 한 것이다.[81]

함석헌에 따르면 '뜻'은 자신의 종교관의 확대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로 의미(meaning)와 의지(will)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82] 이 두 개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철학에서 사용된 체용(體用)의 틀, 곧 본체(원리)와 작용(기능)으로 갈라서 각각 절대의 의미와 상대적 개체의 자유의지로 풀고 그것을 다시 하나의 일관된 과정인 '뜻'으로 결합한 것이다.[83] 함석헌은 '뜻'을 기독교적 신론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로고스)과 동일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하나의 능산적(能産的)인 인격적 존재자를 말하는 역사다. 요한의 말을 빌면 말씀(로고스)의 역사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저 자신 곧 하나님인 로고스야말로 역사를 낳는 자다.[84]

함석헌에게 인류 역사는 분석의 역사가 아니라 종합의 역사이며, 전문적 역사

---

80) 김영호,『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1: 사상의 형성』(파주: 한길사, 2016), 398.
81) 함석헌,『뜻으로 본 한국역사』, 20.
82) 「9권: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씨올함석헌전집』, 385-386.
83) 김영호,『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1: 사상의 형성』(파주: 한길사, 2016), 289-290.
84) 함석헌,『뜻으로 본 인류역사』, 27.

가 아니라 의미의 역사였다. 그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면 냉정한 분석적 방법에 의할 것이지만 산 전일체로서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인격적인 종합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85] 따라서 역사란 개인에게 내재된 절대자, 혹은 '뜻'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도덕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86] 다시 말해 함석헌의 역사 이해에서 '뜻'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자기실현의 원리로 곧 양심이기도 하다. '뜻'은 초월적인 운명을 개인 내부에 내재시키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에게 '뜻'은 천국에 동떨어져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이나 방관자적 이신론적 신을 초월하여, 인간 내부와 역사 속에 현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석헌은 씨올[87]들이 이 '뜻'을 내면에 간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동학이 강조한 인내천(人乃天) 사상, 즉 인간의 내면에 하늘이 있다는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함석헌과 마찬가지로 버터필드의 역사관 속 섭리의 주체 역시 기독교의 신과 동일시된다. 버터필드는 신이 역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이자 역사의 섭리를 이끄는 인격적 주체라고 믿었으며 이는 함석헌의 견해와 일치한다.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섭리의 주체로서 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의 관점에서 '뜻'은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즉 상변자(常變者) 중에서 불변자(不變者)를 의미한다.[88] 또한, '뜻'은 단순히 움직임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일으키는 자이며, 심지어 그 움직임 자체라고 해석된다.[89] 신의 불변성에 대

85)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25.

86)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의식과 사유체계」, 171-172.

87) '씨올'은 민중에 대한 함석헌의 인식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씨올'은 첫째, 영어 단어 'grassroots'와 대응되는 용어로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풀뿌리처럼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며, 둘째, '씨'는 마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핵처럼 민중이 지닌 창조성과 잠재력을 내포한다. 셋째, '올'은 인간의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중의 내재적 초월성을 강조한다. '씨올'의 기원은 오산학교 시절부터 함석헌의 스승이었던 유영모가 YWCA 공개강연에서 대학(大學)의 격언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新)民 在止於至善"을 해석하던 중 '民'을 '씨올'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다. 함석헌은 이 개념을 당시 흔히 사용되던 '국민'이나 '백성'과 같은 표현보다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용어들이 국가주의와 지배주의적 정치 관념으로 오염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24권: 씨올의 의미와 민중운동」, 『씨올함석헌전집』, 230-235.

88)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25.

한 그의 관점은 아래 버터필드의 글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생에서 영원한 반석을 찾고 그것을 향해 충분히 깊이 들어가면 역사적 사건이 그것을 흔들기 어렵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의 사고 체계에 갇혀 있으면 충분한 마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고 마음의 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원칙, 즉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맡기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90]

마이클 벤틀리(Michael Bentley)는 버터필드가 기독교의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굳게 믿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사랑의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믿음이며, 두 번째는 예수가 신의 지상적 현현이라는 것이다.[91] 사랑의 신 개념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신약 성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개념은 함석헌의 사상에서도 발견되며, 그는 역사 속 '뜻'을 신적 사랑, 즉 '아가페'[92]와 동일시한다. 함석헌에 따르면 역사는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찾는 서사시”라고 해석한다.[93] 버터필드에게 신은 휘그 역사가들이 생각했던 방식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이다. 고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 신은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유대인들은 신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때

---

89)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25.

90)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0), 146-147.

91)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205.

92) 기독교에서 아가페(Agape)는 신에 의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의한 신에 대한 상호적 사랑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높은 형태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남녀 간의 로맨틱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Eros)와 형제애를 뜻하는 필리아(Philia)와 대조적이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가페는 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도록 한 사랑으로 언급된다. 이는 신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자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사랑의 속성을 담고 있다.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agape." *Encyclopedia Britannica.*

9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64.

로는 윤리적 문제로 씨름했다.[94] 이에 따라 버터필드는 신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현존하는 존재로 강조한다. 그에게 예수의 현현은 인류에 대한 신의 관심과 참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기독교적 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차이점을 지닌다. 버터필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에 대한 이해에 다소 변화를 보이나,[95] 평생을 감리교 신자로 살며 기독교적 신 이해의 범주에 머물렀다. 반면, 함석헌의 신 이해는 기독교적 서사를 넘어 다른 종교와 문화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신 개념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구조로 확장되었다.[96] 함석헌에게 신 개념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사랑 즉 아가페이지만, 그는 자신의 신 이해를 종파적이지 않은 더 포괄적인 용어인 '뜻'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아가페를 단순히 사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교의 인(仁), 도교의 도(道), 불교의 공(空)과 같은 다양한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7]

3. 섭리와 고난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모두 인류 역사 속에서 고통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에게 고난은 개인을 넘어 민족,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였다. 함석헌에게 고난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 역사는 실패와 절박한 상황, 그리고 불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불행의 연속에 대해 고난(혹은 수난)이라 명명하며 다음과 같이 개념화한다.[98]

> 이 우주는 뜻을 가지는 우주요, 이 역사는 뜻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뜻이 알파요 뜻이 오메가입니다. 그러한 사관 위에서 나는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이름 지었습

94)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154.
95)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204.
96) 김영호,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1』, 135.
97)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64.
98) Halla Kim, "Ham Sŏkhŏn and the Rise of the Dynamistic Philosophy of History in Korea," 158.

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우리 역사같이 천재, 지변, 고역, 질병, 압박과 착취, 내란과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는 역사는 없는데 거기서도 내버리지 않고 일관하는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그밖에 길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99]

함석헌의 역사 서술에서, 고난은 그가 존중하고 믿었던 기독교적, 민족적, 그리고 과학적 정신을 충족시키는 역사 해석의 중심 틀로 채택되었다.[100] 이는 기독교 메시아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겪은 십자가의 고통을 역사적 맥락에 적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이다. 함석헌은 한민족이 특히 고난을 많이 겪는 민족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뜻'을 찾는 과정에서의 주체성과 진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101] 그러나 동시에 고난은 한민족에게 주어진 필연적 과정이자 신이 내려준 숙제이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빗대어서 한민족이 우주사적 수난의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2] 이는 한민족의 역할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편적 사명을 지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함석헌과 유사하게 버터필드는 인류의 역사 속 고난의 사건들을 신의 섭리와 연결 지으며 끊임없이 씨름했다. 그가 볼 때에 휘그 역사가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시대가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최상으로 발전된 시대라고 믿었으므로 이에 따라 도덕적 심판관의 관점에서 역사를 판단했다.[103] 버터필드가 20세기 전반부에 목격한 공산주의 혁명, 파시즘, 나치즘,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휘그 역사가들이 믿었던 인류의 도덕적 및 진보적 발전과는 모순되는 사건들이었다. 이에 대해 버터필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99) 「9권: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 『씨올함석헌전집』, 386.
100) 김영호,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1』, 593.
101) 「9권: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 『씨올함석헌전집』, 387.
102) 「9권: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 『씨올함석헌전집』, 387.
103) Herbert Butterfield,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1-4.

> 액튼 경(Lord Acton)은 최근 몇 세기만을 염두에 두고 섭리가 진보이며 진보가 역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사를 좀 더 길게 보면 섭리의 체계 속에는 우리의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특히 진보가 일방적인 발전을 의미할 때, 사건이 스스로를 매듭짓는 역설과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섭리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진보의 과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름세를 약속하지도 않는다.[104]

이처럼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고난과 모순을 고려했을 때 버터필드에게 섭리는 결코 선이 이기고 악이 진다는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역사의 섭리는 단기적으로는 확인되기 어렵더라도 희미하게나마 도덕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신적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냉정한 위안을 제시하는 것이다.[105] 역사 속에서 섭리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함석헌은 한민족의 고난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당파 싸움과 같은 자발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민족 내에서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의 결핍을 초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106] 버터필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 즉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시며, 역사 가운데서 실수하게도 내버려두시고 매우 위험한 우주 가운데서 모든 물질적인 존재의 위험과 기회에 직면하도록 놓아두신다. 그러나 자석과 같이 인간들을 끌어당기시며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오직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다 이야기하신다.[107]

버터필드의 관점에 따르면, 신은 역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섭리를 통해 이끌

---

104)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97.
105)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214.
106) 「8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씨올함석헌전집』, 169.
107)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327.

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간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자유를 부여한다. 그는 인간의 고난을 근시안적 관점에서 보면, 신이 인간에게 준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인간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버터필드는 역사를 심판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겸손과 신중함을 강조하며, 인류의 고난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인류의 집단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08]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즘의 부상을 단순히 히틀러의 악행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그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킨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의 등장과 성공은 독일이나 영국 국민만의 책임이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와 잘못된 삶을 살아온 유럽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버터필드의 관점에서 인간과 신의 섭리는 모두 역사의 창조자이다. 그러나 섭리는 항상 선을 추구하는 반면, 인간은 때때로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고난 이해는 역사 속 고난이 단순한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이 크게 기여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버터필드의 고난 이해 역시 기독교 성서 속 고난 서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함석헌의 그것과 유사하다. 버터필드는 자신의 역사 속 고난의 이해를 구약성서의 유대인들의 역사와 깊이 연결시킨다. 그는 유대인의 고난과 그로 인한 디아스포라(diaspora)가[109] 결과적으로는 전세계에 그들의 경전과 신앙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듯이, 역사의 고난 역시 궁극적으로는 신의 섭리와 연결된다고 본다.[110] 그러나 버터필드는 고난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부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절대적 선인 섭리와 달리, 인간은 정의롭고 평등한 조건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한다.[111] 특히 인간의 자만심

108) Michael Bentley,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220.

109)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후 포로 혹은 피난민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diaspora." *Encyclopedia Britannica.*

110) 허버트 버터필드,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148-149.

은 선을 향한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버터필드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속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제도나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112]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보며, 역사 속에서 어떤 측면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버터필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외교적 대화와 화해의 시도가 가능하며, 역사의 진보와 세계 협력은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다.

Ⅳ. 결론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역사의 섭리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에게 섭리는 역사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로 여겨졌다. 이들은 과학주의자들이 간과한 역사의 의미론적 해석과 휘그 역사가들이 제시한 '부재하는 신'의 역사관이 인류의 고난과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은 역사를 주도하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힘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함석헌은 이를 기독교적 신론과 동양 종교 사상을 결합한 '뜻'으로 정의했고, 버터필드는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상황과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존의 기독교적 신론에 자신만의 섭리 이해를 통합했다. 그러나 이들의 섭리 이해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함석헌에게 '뜻'은 기독교적 신을 넘어서는 범종교적 개념이자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내면의 힘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함석헌과 버터필드의 견해는 분명하게 갈라진다. 버터필드는 고난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반면, 함석헌은 고

111) Ian Hall, “History, Christianity and Diplomacy: Sir Herbert Butterfie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725.

112) Herbert Butterfield, *Christianity and History*, 147.

난을 역사의 본질이자 신과 인간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끊임없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배경은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세계사적 고통, 특히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에서 발견된다. 비록 버터필드는 제국주의에 비판적이었지만, 그는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의 지식인이었으며, 함석헌은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조선의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고난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드러난다. 함석헌은 고난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보았으나, 버터필드는 고난을 인간 죄악의 결과이자 비극으로 해석했다. 함석헌과 버터필드는 역사 속에서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그 해석은 그들의 개인적 배경과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함석헌, 허버트 버터필드, 섭리사관, 기독교 역사학자, 씨알사상

투 고 일:	2023. 11. 01.
심사종료일:	2023. 11. 24.
게재확정일:	2023. 11. 26.

참고문헌

『씨올함석헌전집』. 바보새 함석헌: 동서를 아우른 생명평화사상. http://www.ssialsori.net/bbs/board.php?bo_table=ssial_book

김성수. 「함석헌의 역사-사회관」.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5 (2001): 342-369.

_____. 『함석헌 평전』. 서울: 삼인, 2011.

김영호. 『함석헌 사상 깊이 읽기 1: 사상의 형성』. 파주: 한길사, 2016.

박재순.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파주: 한울, 2012.

반재영. 「함석헌 평화주의의 한 사상적 기원 – H. G. 웰스의 세계국가론과 그 변용」. 『상허학보』 58 (2020): 397-446.

안두환. 「이론에서 역사로: 영국 국제사회 학파 다시 읽기」. 『국제정치논총』 62, no. 2 (2022): 7-65.

양현혜. 「함석헌의 역사의식과 사유체계」. 『신학사상』 142 (2008): 159-194.

이만열. 「신채호와 함석헌」. 『한국사학사학보』 43 (2021): 173-196.

이종전. 「H. 버터필드의 역사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8.

조 광. 「1930년대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한국사 이해」. 『한국사상사학』 21 (2003): 507-547.

함석헌. 『뜻으로 본 인류역사』. 서울: 함석헌기념사업회, 2023.

_____. 『뜻으로 본 한국역사』. 파주: 한길사, 2003.

버터필드, 허버트 (Herbert Butterfield). 『크리스천과 역사해석』. 김상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Bentley, Michael. *Modernizing England's Past: English Historiography in the Age of Modernism, 1870-197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_____. *The Life and Thought of Herbert Butterfield : History, Science, and G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Britannica, T. Editors of Encyclopaedia. "agape." *Encyclopedia Britannica,*

September 14, 2023. https://www.britannica.com/topic/agape.

_____. "Diaspora." *Encyclopedia Britannica*, January 19, 2024. https://www.britannica.com/topic/Diaspora-Judaism.

Butterfield, Herbert. *Christianity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0.

_____. *The Whig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5.

Hall, Ian. "History, Christianity and Diplomacy: Sir Herbert Butterfield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2002): 719-736.

Kim, Halla. "Ham Sŏkhŏn and the Rise of the Dynamistic Philosophy of Histo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7 (2016): 149-178.

Lee, Songchong. *Ham Sok Hon's Ssial Cosmopolitan Vi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20.

_____. "Homo-Historicus of Wilhelm Dilthey and Ham Sok Hon." *Clio* 50 (2023): 121-150.

McCann, Hugh J. and Daniel M. Johnson, "Divine Providenc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December 9, 2022. https://plato.stanford.edu/entries/providence-divine/#Con.

McIntire, C. T. *Herbert Butterfield : Historian as Dissen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Thorp, Malcolm R. "Herbert Butterfield on Tragedies and Providence in the Twentieth-Century Historical Experience: A Reappraisal." in *Window of Faith: Latter-day Saint Perspectives on World History*, edited by Roy A. Prete, 447–60.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5.

Abstract

Divine Providence in Histo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igious Historical Perspectives of Ham Sok-Hon and Herbert Butterfield

Yoo, Joo Young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views on divine providence held by Ham Sok-Hon, a Korean religious thinker, and Herbert Butterfield, a British Christian historian. Born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raised in a Protestant context, both individuals specialized in history and contemplated the meaning of suffering in history, seeking answers in the providence rooted in their religious beliefs, amidst the backdrop of imperialism and the World Wars. However, their approaches exhibit clear differences due to their distinct geographic, cultural, and geopolitical backgrounds. The article first outlines the lives of Ham and Butterfield as historians, examining the formation of their historical views. It then analyzes their perspectives on providence in history in three aspects. Firstly, their views on providence are characterized by a reaction against the absent God - Ham in response to the scientistic view of history, and Butterfield against the Whig history. Secondly, the paper considers the divine entity they perceive as the agent of providence. While both base their understanding on Christian theology, Ham proposes *ttŭt* (뜻, meaning) as a more universal and inherent force, reflecting his Eastern and pluralistic tendencies, whereas Butterfield adheres to a traditional Christian interpretation of God. Lastly, both recognize that suffering in history manifests providence. They agree that suffering results from human free will; however, for Ham, suffering is an integral part of fulfilling providence, whereas for Butterfield, it is a byproduct of human sin.

Keywords: Ham Sok-Hon, Herbert Butterfield, providence in history, Christian historian, Ssial Philosophy.